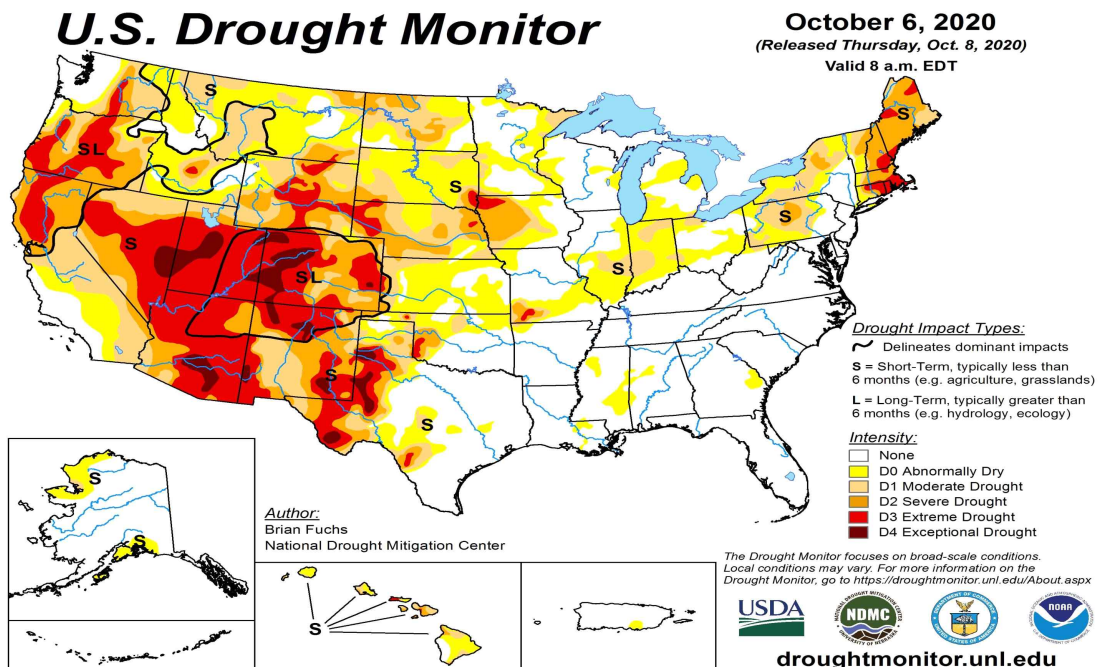


10월 1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41)

□ 미국 기후 현황(10/4~10/10)

2등급 허리케인 델타가 10월 9일 오후 6시 (하절기 중부표준시)에 시속 100 마일 (지속 풍속)의 바람을 몰고, 허리케인 로라가 43일 전에 상륙했던 카메론 읍과 같은 군에 위치하고 있는 루이지애나 주(州) 크리올 근처에 상륙했다. 상륙 직전 루이지애나 켈커푸스에 있는 조위 관측소는 수위가 7.4 피트로서 기록상 6번째로 높은 수위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로라 때에는 그 곳의 수위가 11.07 피트로 기록되었다. 폭우가 남동부 전역으로 번졌고 먼 북쪽으로 테네스 계곡까지 뻗어갔지만 델타는 상륙하자마자 빠르게 약화되었다. 한편, 소나기가 북서부와 오대호와 북동부 주들에 여기저기 내리기는 했지만 미국 내 다른 지역들 대부분은 건조한 날씨로 덮였다. 북서부와 북동부에 내린 비가 산불의 위험을 완화했지만 가뭄을 상당히 완화시킬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고원 지대까지 가뭄이 계속 악화되어 방목지, 목초지 및 출현 중인 겨울 밀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름 작물의 성숙과 수확에 이상적인 조건 속에서 가을 야외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런 건조한 날씨 양상이 중서부 지역의 많은 곳에 걸쳐 확대되었다. 매우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지속된 남동쪽 저지대 전역을 제외하면 미시시피 강에서 동쪽으로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흔하게 발생했다. 미시시피 삼각주와 대서양 중부의 일부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 F 가량 낮았다. 반면에 태평양 연안에서 평원과 옥수수 벨트 서부까지는 온기가 지배적이었다. 고원의 넓은 구역과 북서부 내륙의 일부에 걸쳐서 주간 평균 수치는 평년보다 10° F 이상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 (10/5~10/11)

나라 대부분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기록되었다. 태평양, 태평양 북서부, 로키 산맥 및 남서부 일부는 평년보다 9°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반면에 미시시피 계곡 일부와 대서양 중부, 북동부, 텍사스 동부 및 위스콘신의 포켓은 평년 이하의 기온을 기록했다. 나라 대부분이 일주일 이 끝나는 10월 11일에 평년보다 건조한 상태를 유지했지만 델타, 대서양 중부, 태평양 북서부, 로키 산맥 북부, 남동부, 텍사스 동부를 포함한 많은 부분과 북동부의 포켓은 평년보다 높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주 후반에 루이지애나에 상륙한 허리케인 델타는 델타 지역과 텍사스 동부에 많은 양의 비를 내려주었다. 루이지애나 일부는 일주일 동안 9 인치 이상의 강우를 기록했다.

□ 세계 기후 현황(10/4~10/10)

■ 유럽: 3주 연속 습한 날씨가 대륙의 많은 곳에 걸쳐서 계속되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잉글랜드와 프랑스에서 동쪽으로 폴란드와 발칸 반도까지 내린 총 10~65 mm의 강우가 겨울 보리, 유채 및 밀의 활착에 필요한 수분 공급을 올려주었다. 이탈리아의 많은 곳들에도 지역적으로 번덕스럽게 내린 소나기 (5~50 mm)가 계속되어 - 지난 주 이 나라의 피에몬테 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대홍수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 겨울 밀과 보리의 출현 및 활착을 촉진했다. 스페인은 날씨가 더 건조해져서 여름 작물의 수확과 겨울 곡류의 파종을 촉진했다. 그리스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5 mm 미만) 메디케인 이오나스에서 회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날 무렵에 (위성 및 레이더 영상에서 감지된 것처럼) 폭우가 테살리아를 휩쓸어 성숙한 면화의 품질 문제와 잠재적인 작물 손실을 가중시켰다. 서유럽과 중유럽 전역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낮았던 반면 대조적으로 동쪽 끝에 있는 재배 지역은 온기 (평년보다 2~6° C 높은)가 계속되었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 서부에 닦을 내린 고기압이, 유럽을 빠져나가고 있는 폭풍 전선이 동쪽으로 크게 전진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 결과 몰도바, 우크라이나의 중부 및 서부, 벨라루스 동부 및 러시아 북서부에 보통 내지 강한 비 (10~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렸다. 동일한 이 지역들에 지난 주처럼 폭우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비가 내려서, 2주간 내린 강우로 (50~12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이러한 지역들 중에서 많은 지역들이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서부의 90일 강우량이 각각 평년의 75% 및 100%에 도달하여 2주 전보다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이와는 크게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동부의 강우는 평년의 25%에 불과하여 지난 30년간 최저치에 머물렀다. 이렇게 서쪽 (더 좋음)에서 동쪽 (더 나쁨)까지 우크라이나의 주요 겨울 보리, 유채 및 밀 지역들이 조건은 변동이 아주 컸다. 한편, 러시아는 그 기간 중에 보고된 비가 없는 중에 겨울 밀의 활착 전망이 더욱 악화되었다. 8월 5일 이후 러시아의 지역 평균 강우 총량은 - 남에서 북까지 - 지난 30년간 최저였다: 스타프로폴 (평균의 20% 미만), 로스토프 (10% 미만), 볼고그라드 (20%), 중앙 지구의 남쪽 일부 (평균의 30%). 남부 지구 남서부에 있는 크라스노다르 크라이는 지난 주의 소나기 덕분에 평균의 35% 수준이었지만 여전히 지난 30년간 두 번째로 건조했다. 남쪽 지구의 북부 및 남부에서 작물들이 각각 11월 초와 말에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러시아의 겨울 밀 활착 전망 시간이 빠르게 끝나가고 있다.



■ 동아시아: 유익하게 더 건조한 날씨가 화북평원은 물론이고 중국 북동부를 덮었다. 이런 조건들이 여름 작물의 수확과 겨울 작물 파종을 위한 야외 활동을 지원했다 (화북평원의 밀). 소나기 (10-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주로 양쯔 계곡에만 국한되었는데 풍부한 토양 수분은 유지했지만 여름 작물의 수확과 겨울 유채의 파종은 늦쳤다. 다른 곳에서는 태풍 찬홈 (최대 지속 풍속 80 노트)이 기간이 끝날 무렵 일본의 남동부 해안을 덮었다. 이 폭풍이 혼슈 남동부에 국지적인 홍수 (총강우량이 300 mm 초과)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강우량이 25~100 mm 사이에 있었던 더 먼 북쪽의 장기 건조를 완화했다.

■ 호주: 남호주, 빅토리아 및 뉴 사우스 웨일즈의 남부에 흠뻑 젖는 비 (15~50 mm)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어서 수확 전망을 양호하거나 지역적으로 우수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조적으로 서호주의 밀 벨트 대부분에서는 불리하게 건조한 날씨 (5 mm 미만)가 계속되어서 미성숙 겨울 작물들의 수확 잠재력을 제한한 것으로 보였다. 밀 벨트 내 다른 곳 중에서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의 성숙을 가속화시켜서 최북단 재배 지역에서 건조 및 조기 수확을 촉진했다. 그 건조가 면화와 수수 파종을 포함한 야외 작업을 지원했지만 표토 수분의 감소가 건조지 여름 작물들의 발아를 늦춘 것 같다.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 C 높았고, 빅토리아에서는 평년에 가까웠고, 남호주와 서호주에서는 평년보다 1~2° C 낮았다.

■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주요 농경지에서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그 건조가 미숙한 겨울 곡류와 출현 중인 여름 작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부에 머물러 있는 몇 개의 소나기 (5~25 mm)를 제외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며 코르도바와 산타 페에서 북쪽으로는 완전히 건조했다. 평년보다 1~2° C 낮은 주간 평균 기온이 작물의 수분 수요를 낮추어서 그 건조가 발달 중인 작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고 남부 겨울 곡류 지역에서는 다시 결빙 (영하의 최저 기온)이 기록되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의 낮은 및 중간 20도대 (섭씨)에서 포르모사의 높은 30도대까지의 범위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0월 8일 현재 옥수수는 작년과 비슷한 속도로 24% 파종되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파종이 14 포인트 진전되어 작년의 19%와 비교해서 22% 완결되었지만 코르도바 (13% 파종된)에서는 계속되는 건조로 인해 현장 작업이 중단되었다. 남부 생산 지역에서는 야외작업이 시작되면서 해바라기 파종이 26% 완료되었다.

■ 브라질: 남부 생산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미숙한 겨울 곡류와 출현 중인 여름 작물들에게 유익을 주었으나 브라질 중부의 일부에서는 건조가 대두 파종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 리오 그란데 도 술 북부까지 총 10~25 mm의 강우가 (지역적으로 50 mm) 기록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밀은 10월 5일 현재 73% 수확되었고 나머지의 53%는 성숙 상태에 있다; 한편 첫 작물 옥수수과 대두는 각각 65% 및 8% 파종되었다. 대조적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10월 8일 현재 밀이 겨우 2%만 수확된 한편 옥수수는 60% 심겨졌다. 그밖에 마토 그로소의 북서부 전역에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렸지만 마토 그로소 동부에서 북동부 해안까지 많은 지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높은 30도대와 낮은 40도대(섭씨)의 낮 최고 기온이 계절 강우가 시작되기 전에 흔히 발생하는 건조를 동반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10월 9일 현재 대두 파종이 3%만 완결되어 작년보다 16 포인트 뒤쳐졌다.